

2024 대한민국 헌혈공모전(수혈 수기)

제목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의 실천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들을 품기까지 참으로 다사다난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구요? 저는 제가 습관성유산으로 아이들을 품게 되면 이내 다시 헤어짐을 반복해야했기에 임신이라는 축복이 저에겐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섯 아이들을 하늘의 천사로 보낸 후 비로소 온전히 출산하여 만난 아이가 열 달 동안 엄마뱃속에서 커준 것이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동생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통 난임 환자들이 첫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둘째는 무던하게 만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또 더 희박하다는 둘째도 습유의 시작이라 기적이 없으면 힘들 것 같다는 의료진의 말에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제법 크고, 동생의 임신으로 너무 좋아했지만 이내 하늘의 천사로 떠나버리니, 저만큼이나 충격을 받은 아이는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엄마..동생은 다시 올 꺼예요.“

그렇게 결혼 10주년 만에 기적같이 지금의 둘째가 찾아와서 모두의 축복 속에 만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Covid-19' 라는 바이러스가 전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모두에게 일상의 무너짐을 경험했던 시기, 뜻하지 않게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백신접종의 불안함 속에 임신출산을 맞이해야하는 시간을 온전히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 간의 만남도, 하물며 정기진료 받으러 산부인과 가는 길에 넘어졌는데도 혹여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넘어진 임산부를 도와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각자도생'이라는 말처럼 그저 모두가 힘든 시기를 묵묵히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 달 뱃속 무사하게 태동으로 반응하며, 둘째를 건강히 만나는 위해 첫째아이는 잠시 친정 가족들에게 맡기며 예정일에 맞춰 산부인과 가족분만실로 이동, 운이 좋게 첫째를 출산했던 그 장소에서 둘째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둘째는 첫째보다 분만속도가 더 빠르다고 알려주셨고 8시간 만에 우렁차게 울리는 둘째아이를 온전히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분만 후 후처치를 하는 순간에 처음 보는 의료진들이 계속 들어오고 조용히 이야기하시는데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문의 드렸더니, 담당 원장님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출혈이 멈추지 않고, 지혈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급히 수혈요청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위급 상황시 필요한 수혈이 너무 부족했던 상황에 1차 병원이라는 이유로 저와 같은 혈액형의 혈액을 공수받기까지 1시간 반이라는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3인1조로 멈추지 않은 피를 막기 위해 의료진분들은 환자인 저의 멘탈과 안전을 지켜주실려고 노력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혈액이 도착하고, 수혈하기 전 담당원장님께서서는 수혈관련 주의사항을 언급해주셨는데, 수혈 후 갑자기 찾아오는 오한과 고열 그리고 멈추지 않는 출혈로 인하여 결국 갖태어난 둘째아이만 덩그러니 병원에 남겨진채 응급수술을 위해 상위병원으로 긴급이송 되었습니다.

이미 분만으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 음성결과가 있었지만, 수혈부작용으로 인한 고열로 다시 재검사가 진행되었고, 1차 수혈 받은것으로 부족하였는지 본격적인 수혈 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우측 고관절 부근에 위치한 동맥출혈을 의심하였고 동맥색전시술을 받아야한다며 각종 검사와 시술의 연속, 위급상황이 정신을 놓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던 말들이 기억나서 필사적으로 그 시간을 마주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둘씩 늘어나는 수혈팩과 주렁주렁 달리는 각종수액들과 알 수 없는 것들의 연속.. 분만한지 4시간이 지난시점에 혈압은 떨어지고, 극악의 통증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코로나바이러스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입원실로 갈 수 없기에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갑자기 필름처럼 스쳐지나가는 생각들.. 이대로라면 정말 하늘 나라 갈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에 급히 중보기도를 요청하였고 가족들과 일부지인들의 목소리를 들은 채 눈을 떠보니 입원실 이었습니다.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울리는 알람으로 인해 의료진들은 수시로 들어오고, 수액걸이 링거풀대는 실시간으로 교체되는 수혈 팩과 각종 팩들이 주렁주렁 달려져있어서 입원실침대에서 위기의 순간이 지나감에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무서웠던 그 순간이 다시 생각나서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이내 아침을 맞이하고 누워있는 침대시트 안으로 엄청나게 묻어 있는 피들을 마주하며 살아있음에 감사했던 순간, 분만당일 과다출혈로 인해 동맥색전시술은 성공적이었고 그후의 출혈을 멈췄지만 이미 과도한 출혈을 하였기에 9개의 수혈팩(지금 생각해보면 전혈)을 사용하였고, 심정지 직전까지 갔던 위급한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되었기에 놀란 마음 진정시키고 나니, 비로소 홀로 떨어져있는 둘째아이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병원출입이 엄격하게 관리되는 상황이었던지라 아이를 다시 품에 안기위해서라도 몸을 회복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며 삼일 만에 다시 분만병원으로 옮기고 나서야 아기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걸쳐 집으로 이동 후 더디게 회복되는 몸상태로 아이와 함께 다시 두번째 육아와 함께 다시 만난

첫째와 정신없는 육아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혼자 헌혈하러 다녀온 남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헌혈로 인하여 아내이자 아이의 엄마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기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담아 주기적으로 헌혈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친정엄마와 그날 있었던 상황을 다시 이야기 했을 때, 제가 태어나는 날 엄마도 분만하다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당시 13개의 수혈을 통해서 죽다 살아나셨다며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엄마도 저도 누군가의 소중한 헌혈 덕분에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저 역시 받은 만큼 누구에게 다시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저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자며 1차 목표를 헌혈 가능한 몸상태로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육아와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14개월의 모유수유 시간이 끝나고 건강검진 받으며 몸상태를 확인하고, 헌혈 할 경우 주의사항들을 미리 체크하며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헌혈하고 25년 만에 다시 헌혈 참여하였습니다. 하늘에서도 저의 마음을 예쁘게 봐주셨는지 3개월 간격으로 헌혈할 때마다 혈압도 헤모글로빈 수치도 좋게 나오다보니 목표를 수혈 받은 만큼 최소 9번의 헌혈로 버킷리스트 상향조절! 헌혈하러 갈 때마다 반갑게 맞이해주는 헌혈의집 중앙센터 선생님들은 덕분에 부족했던 헌혈상식도 알게 되며 아이도 함께 방문하여 헌혈의 중요성을 같이 교육받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헌혈을 통해, 그 누군가는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소중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 작은 바람과 소망으로 사랑을 더붙여 나누며 함께 동행하는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헌혈의 순기능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뒤늦게 코로나바이러스 걸려서 잠시 헌혈이 주춤되었지만 어느덧 8번의 헌혈을 마무리하였고, 9번째 헌혈을 눈앞에 마주한 지금, 헌혈버킷리스트 2번째 달성을 위해 오늘도 건강한 생활을 지켜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급한 순간의 누군가에게 절대적이자 절박함으로 생명의 연장선이 되어주는 헌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사랑의 실천을 실행하고 있는 히어로들이 있기에, 저 역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귀한 생명들이 살아 숨 쉬어 생명에서 다시 생명으로 순기능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헌혈에 많은 분들이 동참되어지고, 저 역시 누군가의 소중한 헌혈을 수혈 받은 만큼, 9번의 헌혈버킷리스트를 완주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겠습니다.

헌혈. 작은 밑알의 씨앗이 큰 나무로 성장하듯이, 사랑의 실천이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두가 동참하는 헌혈을 응원하겠습니다.





